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Group Therapy Program for Social Readjustment of Delinquents Under Probation*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교 수 정 문 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송 성 자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 : Chung, Moon Ja
Dept. of Social Work, KyongGi University.
Prof. : Song, Sung Ja

목 차

Ⅰ. 서 론
Ⅱ. 해결중심 접근과 프로그램 연구
Ⅲ.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의 개발
Ⅳ.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의 실시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Social Readjustment Group Therapy Program for delinquents under probation. This program intended to enhance the participants' self-esteem, impulse control, daily life habits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Thirty one male delinquents were chosen from a Probation Center in Seoul, and were divided into one of the four small groups. Group Therapy based on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Model was given for three hours for ten sessions by four group leaders and four assistants. Results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over all of the above target behaviors, especially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사회재적응(social readjustment), 비행청소년(delinquent), 해결중심모델(Solution-Focused Model), 자아존중감(self-esteem), 충동조절(impulse control)

* 본 연구는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제간 협동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KRF-2000-X00673).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나 급격하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하고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현대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더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발달적, 사회적 과업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스트레스와 변화를 잘 극복하는 것이 더 힘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비행횟수의 증감과 내용의 변화에서 가늠할 수가 있다. 대검찰청 자료(1999)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가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994년에 비해 청소년 범죄율이 약 50%가 증가하여 전체범죄 증가율인 41%를 넘어서게 되었다.

청소년 범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에 있어서도 저연령화, 포악화, 일반화, 재범화, 집단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이백철, 김현중 & 송성자, 2000; 정기숙, 1993). 특히 재범율은 전체 범죄 발생건수 중 43%이며, 재범 2회 이상이 65%에 달하고 있어 한번 저지른 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재비행을 막고 학교와 사회, 가정에 잘 적응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나라는 1989년 7월부터 범법 행위를 한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사회재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은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수강명령의 경우 청소년 상담소나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시립 상담소와 같은 관련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등산과 체육대회, 친교와 교제 시간, 교육과 강의, 시청각 교육, 그리고 대상자와 부모를 위한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배임호, 1996) 친교시간을 제외하고는 비행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수동적인 편이다. 비행청소년들이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동기가 일반적으로 낮으며 비자발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참여동기를 높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의 특성과 개인 내·외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학교에서의 특성으로 나누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개념, 비규범적이고 낮은 신뢰감을 들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억압된 감정이 많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좌절, 분노,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최규련, 1996), 불안과 방어적 경향을 보이며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자기통제가 잘 되지 않으며(김향초, 1998),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강영자, 이재연, 1996).

비행청소년의 가정적 특성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적 특성은 주로 편부모 가족, 빈곤가족의 경우로 보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있는 중·상류층 가족의 청소년들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이영숙, 1993). 기능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부불화 정도가 높으며(박금희, 1986),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친밀도가 낮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는 한편(민하영, 1992), 거부·통제적이며, 심한 체벌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등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1989).

비행청소년의 학교에서의 특성으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교우관계와 학교성적과 같은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자, 이재연, 1996; 김준호, 1994). 이상을 요약해 보면, 비행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문제의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외적 귀인 성향이 강

하고, 주의집중력이 약해 쉽게 지루해 하는 성향이 높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대인관계도 원만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강점과 장점이 있으며,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램들이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접근보다는 비행청소년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해결중심적인 접근과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배임호, 2000)고 본다.

해결중심 접근의 기본가정은 모든 인간은 강점과 장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생각할수록 문제행동이 아닌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장점이나 자원을 탐색하여 내담자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내담자 자신과 그의 준거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중시하면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세워 변화를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시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작업한다(가족치료연구모임, 1993 & 1996).

이러한 해결중심 접근은 자아존중감이 약하고 실패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결과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분, 1995; 정문자, 1995). 그 예로 미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의 참여가 증진된(Osborn, 1999)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백철과 동료들(2000)은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백철과 동료들(2000)의 "비행청소년의 사회재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한 송성자의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감정통제력 향상,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및 생활습관의 개선을 돕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재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평가에 기초하여 좀 더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결중심 접근과 프로그램 연구

해결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집단치료 프로그램들은 내담자를 자기 문제의 전문가로 보며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자는 내담자가 소유한 강점과 장점,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목표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결중심적으로 진행해 나간다(Corcoran, 1998). 이처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며(Corcoran, Sthephenson, 2000; Dolan, 1991) 결과적으로 자기 문제를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그들의 단점과 비행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권위적이고 지시적이며 일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아존중감도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에게조차 치료적 협력(collaboration)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해결중심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점차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sborn, 1999). 해결중심 접근법(가족치료연구모임, 1996)의 원리와 중심철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리로는 첫째,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며 잘못된 것에 관심을 두는 대신에 성공한 것과 성공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둔다. 둘째, 내

담자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한다. 셋째, 탈 이론적,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의 가설적 틀에 맞추어 내담자를 사정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넷째, 가능하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추구한다. 다섯째, 변화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문제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많은 예외적인 것 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무시한다. 그러나 해결중심 치료는 이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문제상황과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증가시킨다. 여섯째,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과거와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현재 원하는 것과 미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해결중심접근은 내담자와 협력하며 해결책을 얻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이와 함께 해결중심 접근법의 중심 철학으로는 첫째, 효과가 있으면, 수정하지 않는다. 둘째, 일단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더 많이 한다. 셋째, 효과가 없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는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는 치료개입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해결중심적 질문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상담 전의 변화에 대한 질문, 예외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 대처질문, 관계성질문 등이 있다(가족치료연구모임, 1993 & 1996; 허남순, 노혜련, 1998).

이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 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상담 예약을 한 시점에서 상담 받는 시점 사이에 상담목표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예외질문은 내담자가 문제시하는 행동이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관해 묻는 질문으로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한다. 기적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기적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이 기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얻음으로써 치료목표의 설정에 도움이 되게 한다. 척도질문은 내담자가 여러 측면, 예를 들면 변화에 대한 동기나 의지, 만족도, 자신감 정도 등을 1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며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처질문은 기적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거나 절망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질문기법이다. 이 질문은 내담자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견디었으며,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러한 질문과 반응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자원과 노력을 발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질문은 내담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내담자와 관련된 사람이 직접 치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의 철학과 질문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예들을 살펴보면, 정민회(1998)는 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 7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총 7회에 걸쳐 해결중심 집단치료를 실시하였다. 집단치료 결과,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 알게되었으며 어떤 경우에 술에 대한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한지 5개월 뒤 사후 조사에서 전체 구성원 7명 중 2명은 재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숙(1999)은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총 8회에 걸쳐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정은(2000)은 만성질환자의 자녀 6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해결중심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구성원들은 만성질환자 자녀들이 보이던 역기능이 완화되고, 자신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백철, 김현중 & 송성자(2000)는 서울 소재의 한 근로청소년 시설의 비행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연구자들의 기본전략은 내담자의 강점과 장점 및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탐색하여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접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찾아내어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용기를 줌으로써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로 사용된 질문기법들은 예외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 관계성질문, 대처질문 등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대한 발견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으며, 감정을 통제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ittrell, Malia와 Vanderwood(1995)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에 대한 관심과 목표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해결중심적 집단치료를 1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들이 상담 후 2주와 6주에 각각 평정한 문제 변화 정도와 목표 성취 정도는 유의하게 증진된 반면, 통제집단 학생들은 평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결중심 상담기법을 사용한 집단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치료대상자들의 강점과 장점을 부각시켜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게 하며 그들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가정, 또는 사회와 같은 여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결중심 프로그램은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도 비자발적인 비행청소년들에게 치료적 협력관계 속에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켜주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통제력,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력, 생활습관 등이 향상될 필요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해결중심 접근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해결중심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III.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송성자(이백철 외, 2000)가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집에 거주하면서 수강명령을 수행하는 청소년집단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과는 달리 상황과 욕구 및 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목적

본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해결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이 현재까지의 생활에서 현재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잘해온 것, 성공적 경험, 그리고 그들의 강점과 장점에 초점을 두면서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감정통제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와의 관계 및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재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입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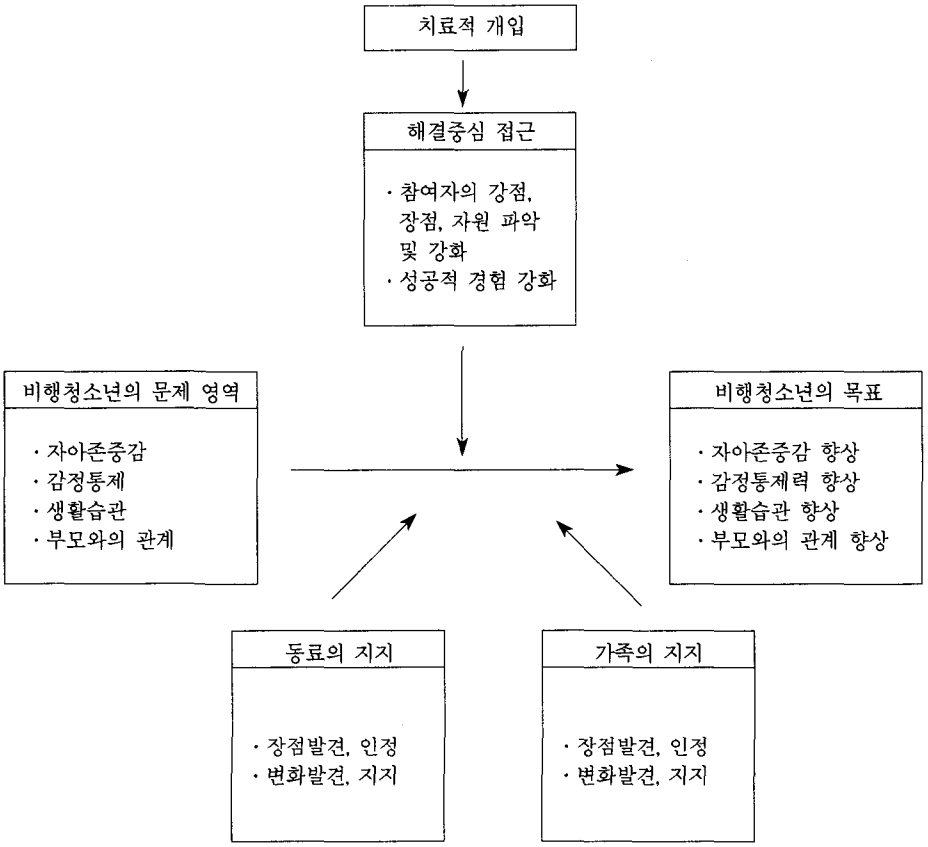
2. 해결중심 프로그램의 구성

1) 단계별 목표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사회재적응이라는 궁극적 목적 하에 치료의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2)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집단치료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해결중심 치료의 원리와 접근기법(가족치료연구모임, 1993 & 1996)에 기초하였으며, 송성자의 집단치료 프로그램(이백철 외, 2000)을 참고로 하여 보호처분



<그림 1> 비행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치료 모형

<표 1>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진행단계	목 표	비 고
초기	·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작업준비 ·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돕기 · 구성원과 치료자간의 편하고 신뢰로운 관계 형성하기 · 목표설정	· 목표설정과 성취에 있어 소집단별로 집단 구성원의 상황과 의견을 존중하여 융통성있게 시행한다.
중기	· 구성원이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변화를 통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기 · 구성원의 긍정적 변화의 발견 및 유지	
말기	· 구성원의 긍정적인 변화의 유지 및 강화와 확대 · 프로그램의 종결에 대한 작업준비	

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기별 목표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회기별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및 과제

단계	회	목 표	내 용	과 제
관계 형성과 목표 설정	1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 집단치료자와 구성원간의 관계형성	• 각 집단구성원들의 특징, 좋아하는 것, 보람이 있었던 것, 강점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 집단치료에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 집단별로 지켜야 할 규칙과 그에 대한 보상 정하기	•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오기
	2	• 관계형성 • 강점과 장점 발견 • 목표설정	• 본인의 좋아진 것과 변화한 것,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 동료의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 좋아하는 것, 변화하고 싶은 것, 희망과 목표 이야기하기 • 현재 본인의 상태와 앞으로 원하는 목표점수를 척도화 하기 (1-10점)	• 현재상태 척도 점수에서 무엇을 하면 1점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오기
	3	• 관계형성 • 강점과 장점 발견 • 목표설정	• 본인의 좋아진 점과 변화한 점,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 동료의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 변화를 위한 목표설정하기 • 현재의 상태, 변화 가능성, 노력 가능성 정도를 점수로 척도화 하기 •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해결중심적 만화그리기(8절지 도화지를 6칸으로 나눈 후 각 칸마다 관찰소에 오게 된 이유, 도우미, 도움이 될 만한 선물, 선물의 효과, 선물이 필요한 상황, 도우미에 대한 감사 표현 등을 그리도록 함)	• 자신의 변화에 대해 가족과 중요 인물의 반응을 관찰해 오기
구체적인 목표의 성취	4	• 가족과 타인에게 긍정적 반응하기 • 구체적 목표의 성취	• 본인과 동료의 좋아진 점과 변화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 칭찬하기 •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 칭찬하였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 구체적인 목표 발표하기 • 변화를 유지하는 행동 발표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기적이 일어났을 때의 행동을 해보고 이에 대한 다른 가족의 반응 관찰해오기
	5	• 변화의 효과적인 방법 찾기	• 본인과 동료의 좋아진 점과 변화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 칭찬하기 •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의 격려를 생각하기 •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1점 올라갔을 때의 행동을 해보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기
	6	• 5년 후의 자아상 생각하기	• 동료의 변화를 상호 지적하고 인정, 칭찬하기 •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변화와 반응을 이야기하기 • 가족과 주변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다른 반응을 이야기하기 • 5년 후의 자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구정연휴동안 유혹에 대처해 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관찰해 오기
	7	• 자신이 노력한 것과 변화한 것에 대해 발표하기	• 연휴기간동안 변화한 것, 노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 예전과 다른 자신의 행동과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구성원들이 칭찬한 것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는지를 관찰하기
변화의 확인 및 종결 준비	8	• 긍정적 변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 확인하기	• 변화에 대하여 본인, 가족,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자신에 대한 가족, 주변 사람들의 반응 관찰하기
	9	•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법	• 문제에 대한 예전과 다른 대처방법을 생각, 발표하기 • 다른 사람과 자신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기 •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를 이야기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자신의 변화를 유지하는 방법 생각해 오기
	10	•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정과 평가	• 자신의 변화에 대한 자신, 동료, 치료자의 인정과 평가를 서로 이야기하기 •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논의하기 • 유혹이나 문제에 대한 예전과 다른 대처방법을 논의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하기 • 종결의식 치르기	• 잘해온 것을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부탁

IV.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의 실시

1. 참여자에 대한 정보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차량도주, 폭력행위, 절도, 본드흡입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아 2001년 1월에 서울시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31명이었다. 이들은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평균 연령은 16.9세였으며, 31명 중 19명(61.3%)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었다. 죄명을 살펴보면 특수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회수는 초범이 25명, 재범이 6명이었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론적, 비행 관련 정보 (N=31)

변 인	구 분	인원수(%)
연령	14-16세	7 (22.6)
	17-18세	24 (77.4)
학력	중학교 중퇴	1 (3.2)
	중학교 졸업	2 (6.5)
	고등학교 중퇴	9 (29.0)
	고등학교 재학	19 (61.3)
죄명	도로교통법	6 (19.4)
	환각물질흡입	1 (3.2)
	사기/절도	5 (16.1)
	자동차관리법	1 (3.2)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 (6.4)
	특수절도	10 (32.3)
	폭력행위	6 (19.4)
범죄회수	초범	25 (80.6)
	재범	6 (19.4)

2. 프로그램의 실시

1) 준비작업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세웠다. 대상섭외를 위해 2개 수용시설과 1개 비수용시설을 방문한 후 한 곳의 비수용 시설인 보호관찰소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프로그램 실시

앞서 제시된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2001년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 소재 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매회 3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집단은 7-8명으로 구성한 총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소집단별로 집단리더 1명과 보조자 1명씩 총 8명이 개입하였다. 집단리더 4명 중 2명은 상담 및 가족치료전문가인 대학 교수와 사회복지사이면서 가족치료전문가인 대학교수였고 나머지 2명은 아동·가족 전공 박사 과정생 1명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 과정생 1명이었다. 보조자 4명은 모두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관련학과 석사 과정생으로서 상담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리더의 진행을 도왔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30여분간 계획에 대한 점검과 준비를 하였고, 프로그램 후 30여분간은 평가와 다음 회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프로그램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시작 초와 말에 전체 모임이 있었고, 중간에는 소집단 모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기 20분 동안에는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당일의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며 친교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 후 1시간 40분 동안 조별로 나뉘어서 각 세션마다 설정된 목표와 주제에 따라 집단치료를 실시하였다. 집단치료 후 약 20분간 참여자들이 간식과 휴식을 하는 사이에 치료자와 보조자는 참여자들의 과제를 포함하여 강점과 장점 등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휴식시간 이후 다시 조별로 모여 약 20분간 참여자 각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통된 과제를 주었다. 그 후 전체 모임을 가졌고 조별 치료자들이 그날의 조별 활동을 간략히 보고한 후 한 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프로그램의 시간별 구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프로그램의 시간별 내용

시간대	내 용		소요시간
1:00 - 1:20	전체 모임	안내 및 레크레이션	20분
1:20 - 3:00	소집단 모임	소집단 치료	1시간 40분
3:00 - 3:20		간식, 휴식	20분
3:20 - 3:40		소집단 피드백/ 메시지	20분
3:40 - 4:00	전체 모임	종합정리, 피드백, 광고	20분

3. 해결중심 모델의 원리와 기법활용

집단 구성원의 역동과 상호작용에 의해 앞서 제시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방법이 팀에 따라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단계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용된 원리와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참여동기가 없거나 부족한 비자발적 내담자이다. 그러므로 집단의 리더는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의하고 협력하는 입장에서 집단치료를 이끌어 나갔다. 특별히 그들의 비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나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 분석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 장점, 자원에 관심을 두고 이를 파악하고 확인하며 부각시켰다. 특히 상담의 초기단계인 1, 2회 때 이 기법을 집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게 하였다.

셋째, 이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를 찾아내어 칭찬하였다. 칭찬과 격려에는 집단리더가 한 것과 동료들이 서로의 장점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있었다.

넷째,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는 예외질문과 기적질문, 현 상태 파악과 변화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질문, 그리고 대처질문과 관계성질문 등 해결지향적 질문들을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질문의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적질문은 3회 때 구성원들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특별히 이 질문은 현재 자신의 처지로 인해 미래를 향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인식전환을 도울 수 있었다. 기적질문을 활용하기 위해 해결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만화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활동은 종이를 6개의 칸으로 나누고 각 칸에 여기 오게 된 이유, 도우미, 도움이 될 만한 선물, 선물을 받으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선물을 받아야 할만큼 힘든 상황, 도우미에게 감사 표현하기 등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주의 집중이 부족한 비행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생각을 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예외질문은 문제가 일어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특히 이 질문은 비행의 유혹이 클 가능성이 있는 주말이나 연휴 후의 상담시간에 많이 사용하였다. 이 질문과 응답과정을 통해 문제중심의 접근에서 해결중심으로의 인식전환을 하도록 하며, 예외상황과 문제상황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예외상황을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척도질문은 청소년들이 변화에 대한 확신, 동기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각 측면을 시각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목표 성취 정도에 대한 질문은 매 회 상담을 끝마치기 전에 하였다. 관계성질문은 가족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 그리고 관계 파악과 개선에 사용하였다. 이 질문기법을 통해 가족이 함께 자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처질문은 치료의 초, 중, 말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였다. 치료 초기와 중기에서는 만성적인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를 묻는 대처질문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발견하고, 강점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반면 말기에는 상담을 마친 후 다시 이전에 나빴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치료가 진행되는 중 겪었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상기시켰다.

다섯째, 매회 소집단 상담 후 20여 분간의 휴식을 한 뒤 각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장점과 변화에 대한 칭찬과 함께 과제를 주었다.

여섯째, 전화와 편지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잘하고 있는 점을 부모와 가족에게 알림으로써 자녀의 변화에 대해 부모의 관찰과 인식능력을 넓히며 칭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치료중반에 참여자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감지되기 시작되면서 각 조의 리더들이 부모나 가족과 전화로 참여자의 변화와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치료 종결 시에는 변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평가를 정리하여 부모에게 편지로 전하였다.

일곱째,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관계성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강아지인형을 사용하였다. 비행청소년의 현재 감정상태를 강아지인형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거나 강아지인형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말을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시상과 촛불전달로 구성된 종결의식을 가지면서 완결되었다. 시상식은 각 조별로 집단치료 프로그램 과정 중 규칙을 잘 지키고 집단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한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촛불전달식에서는 한 참여자가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옆사람의 초에 불을 밝혔고 모든 참여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4. 프로그램의 평가

비행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영역들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다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표적행동들인 자기 만족도, 감정통제, 귀가시간,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관계의 5개 항목에 대해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 시작시 각 항목에 대한 만족점수를 1점이라고 하고, 성장과 변화하여 매우 만족한 상태일 때의 점수를 10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종결시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점수는 〈표 5〉와 같다.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재적응에 도움이 되는 위의 5개 항목들에 대하여 평균 6점에 가까운 성취 정도를 보였으며, 이중 현재의 자기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청소년들의 만족 정도가 1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감정통제,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향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기거하면서 수강명령을 수행하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재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자아존중감과 감정통제력 향상 및 부모와의 관계와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해 해결중심적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한 후 효과성에 관한 일차적 평가를 하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5〉 집단치료를 통한 개인의 변화에 대한 자기 평가

(N=31)

항목내용	자아존중감	감정조절	생활습관		가정생활
	자기 만족도	감정통제	이른 귀가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관계
평균점수	6.9	5.5	5.6	5.8	5.8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접근을 사용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감정통제력은 향상되었고,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부모와의 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결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을 표적행동별로 살펴보며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과 주위의 부정적인 낙인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최규련, 1996; 김향초, 1998). 이러한 특성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강점과 장점을 부각하며 작은 변화에도 칭찬을 해주면서 그들의 문제 대신 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대처질문과 예외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들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왔다. 이것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감정통제력이 향상되었다. 비행청소년은 자기조절력이 부족하여 비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배임호, 1996). 따라서 감정통제력은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통제과 관련된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이 부분을 칭찬으로 강화하고 확대하여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이러한 격려가 비행청소년의 감정통제력이 향상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향상되었다. 비행청소년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는 일찍 귀가하기, 일찍 일어나기가 많았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 조별로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는 것을 규칙화하여 일찍 일어나기뿐만 아니라 일찍 귀가하여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치료시간동안 목표성취를 위한 척도질문을 사용하여 1점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물어보고 이를 달성한 경우 칭찬해주었다. 또한 주말과 연휴처럼 유혹이 강해지는 시기 전에는 대처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이루어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독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이 비행청소년의 기본적 생활습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이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관계성 질문과 비행청소년 자신이 변화할 때 부모의 반응을 관찰해보는 과제 및 비행청소년 부모와의 전화상담이었다. 비행청소년들은 과제를 통해 그들 자신의 변화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와 전화상담을 한 것이 청소년들의 변화가 인정되고 유지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Corcoran(1998)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문제점과 단점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 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내담자인 학생의 장점과 자원들에 강조점을 두고 상담을 하면 자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가족들이 자녀의 변화를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를 칭찬해준 것이 자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종국에는 청소년들의 자기변화를 돕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부모와 가족 지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 또는 수량적인 평가가 아닌 점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본 프로그램에서 비행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강아지인형 활용과 해결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만화 그리기를 들 수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 비자발적인 비행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들 자신의 마음을 보다 정확하고 편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프로그램에서 적용한 해결중심 접근은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자들이 협력적이고 비권위적인 자세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강점과 장점을 부각하고, 또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을 칭찬하고 변화를 유지하도록 격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정과 격려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게 되었고, 자신의 변화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개인과 부모와의 관계 변화는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에서의 변화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송성자(2001)의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확장한 본 프로그램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자유로운 시간이 많고 행동반경이 넓어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으나 부분적이나마 부모와 가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사회재적응에 필요한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이들에게 효과적이라 함은 본 프로그램이 다양한 상황의 비행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유효한 측면들이 있었던 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세션간의 간격이 짧기 때문에(주 3회) 상담을 받고 난 후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상담 초기에는 상담 세션간의 간격을 짧게 하고(주 2-3회), 상담이 진행되면서 차츰 세션간 간격을 융통성있게 늘릴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에서는 조별 구성원이 7-8명이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개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반면 이들의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면 상담시간을 늘리는 것이 무리일 수 있으므로 집단 구성원의 수를 5-6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보호관찰기간이 많이 남은 집단 구성원이 적게 남은 집단의 역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기에 수강기간이 많이 남은 청소년들을 적게 남은 청소년들과 분리하여 치료·교육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중심적 접근에서 사용하는 질문기법 중 하나인 척도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은 치료대상자 개인의 지각을 중시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준거가 요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 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가족치료연구모임(역)(1993).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가족치료연구모임(역)(1996). 단기가족치료-해결중심으로 되어가기. 서울: 하나의학사.

강영자, 이재연(1996).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307-326.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의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준호(1994). 한국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논문집.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누구에게 속한 아이들인가?. 서울: 학지사.

대검찰청 자료(1999). 학생비행. http://www.nasaro.or.kr/j-3.htm.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박금희(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숙(1999). 해결중심 단기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및 상담효과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배임호(1996).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 245-278.

배임호(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 피해자-가해

자 중재 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송성자(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이백철 · 김현중 · 송성자(2000). 비행 청소년의 사회재적응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영분(1995). 청소년자녀문제 치료를 위한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모델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21-39.

이영숙(1993).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문제세미나 자료.

이정은(2000). 만성질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결중심 집단 효과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기숙(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병리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43-155.

정문자(1995). 십대소녀의 가족치료에 적용된 해결중심적 치료기법 및 치료내용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20.

정민회(1998). 알코올 중독자 집단치료에서 해결중심 가족치료모델의 적용사례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255-274.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허남순, 노혜련(역)(1998). 해결을 위한 면접. 서울: 학문사.

Corcoran, J. (1998). Solution-focused practice with middle and high school at-risk youths. *Social work in education, 20(4)*, 232-233.

Corcoran, J. & Sthephenson, M. (2000).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therapy with child behavior problems: A preliminary report. *Families in society, 81(5)*, 468-474.

Dolan, Y. (1991). *Resolving sexual abuse: Solution-focused therapy and Ericksonian hypnosis for adult survivors*. New York: Norton.

Littrell, J. M., Malia, J. A., & Vanderwood, M. (1995). Single-session brief counseling in a high school.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51-458.

Osborn, C. J. (1999). Solution-focused strategies with "involuntary" clients: Practical applications for the school and clinical setting.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7(3)*, 169-180.